

2022년 대림판공문제집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세 1,27)

대림 제1주간 | **하느님의 창조**

대림 제2주간 | **인간의 존엄성**

대림 제3주간 | **강생의 신비**

대림 제4주간 | **생명 윤리**



수원교구 복음화국



인사말

교구 복음화국에서는 대림 시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쁘게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2022년 대림판공문제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문제집의 제목은 『하느님의 모습으로』(창세 1,27)라고 정했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느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아껴야 한다.’라는 유혹에 종종 빠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내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번 판공 문제집은 대림 시기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믿음의 길』 수원교구 복음화국, 2013년 chapter 4. 강생의 삶^{190-271쪽}』의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대림 제1주간에는 ‘하느님의 창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림 제2주간에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대림 제3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강생의 신비’를 묵상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림 제4주간에는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는 법, 곧 ‘생명 윤리’를 다루어 볼 것입니다.

본 문제집을 통해 무엇보다 내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나아가 하느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그 인간을 위해 태어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을 위한 생명 윤리를 되새기면서 내 이웃들 역시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소중한 사람들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를 기억하면서 은총의 대림 시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교구 복음화국장 | 이승환 루카 신부



CONTENTS | 2022년 대림판공문제집

인사말

대림 제1주간 | 하나님의 창조

- 02 복음 말씀 묵상 | 마태 24,37-44
- 03 말씀 나누기
- 03 신앙 배움터
- 06 대림 제1주간 판공문제

대림 제2주간 | 인간의 존엄성

- 08 복음 말씀 묵상 | 마태 3,1-12
- 09 말씀 나누기
- 10 신앙 배움터
- 12 대림 제2주간 판공문제

대림 제3주간 | 강생의 신비

- 14 복음 말씀 묵상 | 마태 11,2-11
- 15 말씀 나누기
- 16 신앙 배움터
- 18 대림 제3주간 판공문제

대림 제4주간 | 생명 윤리

- 20 복음 말씀 묵상 | 마태 1,18-24
- 21 말씀 나누기
- 21 신앙 배움터
- 24 대림 제4주간 판공문제



하느님의 창조



복음 말씀 묵상 | 마태 24,37-4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7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38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39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40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1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2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43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44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 나누기 ;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 시기의 시작인 대림 제 1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다시 오실 날, 곧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평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던 사람들이 휩쓸려 갔듯이, 마지막 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일상의 삶에만 몰입하여 하느님을 잊고 산다면, 결국 절망 속에서 마지막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종말은 멸망의 의미만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멸망을 넘어서는 하느님 창조 사업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당신께서 지어낸 모든 이들을 살리시려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은총도 인간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억지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과 의무감을 넘어, 정말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구세주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림 시기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며 소소한 일상 안에서도 하느님께 감사하고,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 하느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노력합시다. 아울러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신앙 배움터 ;

구약성경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죄의 비극을 표현하는 동시에 이를 넘어서는 구원의 희망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약에서 보다 구체화됩니다. 신약에서 창조주 하느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계시됩니다. 중개자이신 말씀은 한 처음부터 하느님과 함께 있었으며,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시기에,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을 향하도록 질서를 마련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님인 한에서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이는 바로 서간의 주제인 '새로운 창조'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데, 새로운 창조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구원적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세상을 완결된 상태가 아니라 진행의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의 선물인 자유를 남용하여 이 세상에 무질서와 어둠을 끌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유는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하고, 깨어진 관계와 질서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창조는 필수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절정이며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의 강생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하느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세례 성사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순간부터 새로운 창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은총도 인간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억지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구원로의 초대에는 인간 개개인의 자발적 응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인간은 성사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에게 믿음이 없어도 성사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에게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동의해야만, 성사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으로 계속 성장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전 인류에게 원하시는 자기완성의 길, 곧 새로운 창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물론 세상의 종말은, 멸망을 넘어서는 하느님 창조 사업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서서히 임하지 않고 갑자기 도래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철저한 준비와 각성을 촉구하는 하나의 경종이요 알림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 24,44) ”**



대림 제1주간 하느님의 창조

0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의 한 인물과 관련된 사건을 예로 들며 당신의 재림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그 인물은 누구입니까?

02/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재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마태 24,43-44).”

03/ 다음은 성사의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각각 무엇입니까?

(㉠) → 성사들은 ‘성사 거행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진다. 곧, 단 한 번에 영원히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성사는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의로움이 아닌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성사가 교회의 의향에 따라 거행되면 집전자의 개인적인 성덕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그분 성령의 힘이 성사 안에서 성사를 통하여 작용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128항).

(㉡) → 그렇지만 성사가 맺는 결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에도 달려 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128항).

- | | | | |
|-------|-----|-------|-----|
| ㉠ | ㉡ | ㉢ | ㉣ |
| ① 인효성 | 사효성 | ② 사효성 | 인효성 |
| ③ 연대성 | 보조성 | ④ 초월성 | 단일성 |

04/ 창조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구약에서 말하는 창조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와 파멸이다.
- ② 창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피조물인 인간의 맹목적 복종을 통해 충만해진다.
- ③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결된 상태로 창조하셨다.
- ④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믿음과 실천으로 그분의 창조 계획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05/ '새로운 창조'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모든 성사들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효하고 인간의 자유를 거스르면서까지 은총을 전달한다.
- ② 인간이 이 세상에 끌어들인 무질서와 어둠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다.
- ③ 세례성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순간부터 새로운 창조는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 ④ 새로운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종말이란 멸망을 넘어서는 하나님 창조 사업의 완성을 의미한다.



인간의 존엄성



복음 말씀 묵상 | 마태 3,1-12

1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2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3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4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5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6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7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

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8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9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10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2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말씀 나누기 ;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자 인권 주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이들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끝내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죄에 허덕이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느님께서서는 세례자 요한을 먼저 보내시어 당신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우선 세례자 요한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부터 나무랍니다. 바리사이는 당시 율법에 따라 기도와 자선을 비롯하여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자기처럼 열심히 살지 않는 이들을 판단합니다. 죄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여 그들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무시하고 냉대할 뿐입니다. 바리사이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남들보다 높아지길 원했기 때문에, 죄인들의 회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발아래 영원히 죄인으로 남아있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사두가이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삶을 믿지 않으니,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보상받고자 합니다. 그것을 하느님의 축복이라 합리화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두가이는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기보다는 철저히 로마 정부

에 협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치적·경제적·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는 자신의 욕심만 채울 뿐, 나와 같이 존엄한 인격을 지닌 동등한 인간으로서 이웃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를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이들처럼 이기적인 모습은 없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울러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신앙 배움터 ;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지상에서 그 자체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바라신 유일한 피조물(「사목 헌장」 24항)”로서 본성적으로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한 인격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체가 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자유로이 자신을 내어주고 친교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은 남녀 간의 관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녀는 동등한 존엄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는 각각 구별되어 창조되었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줌으로써 자기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남녀는 특별히 생명에 대한 소명을 지니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은 참행복을 향한 소명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나 참행복은 더 이상 지상에서 누리는 기쁨에 그치지 않고, 하늘나라를 차지함으로써 완성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참행복을 이룰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참행복은 부유함이나 안락함이나 권력에서 찾을 수 없으며, 오로지 모든 선(善)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고립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때 참행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과 이웃의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안정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공동선은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둥니다.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궁극적인 원천은 인간의 단순한 의지나 공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양도할 수 없는 보편적인 가치로서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수호되어야 합니다.



대림 제2주간 인간의 존엄성

01/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두 집단을 나무랍니다. 이 두 집단의 이름은 각각 무엇입니까?

02/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을 듣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과 ()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마태 3,11).”

03/ 지상에서 그 자체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바라신 유일한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04/ 하느님을 닮은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피조물들 가운데 오로지 인간만이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품고 있다.
- ②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이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완성을 추구할 수 있다.
- ③ 인간은 존엄한 인격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주체가 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자유로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
- ④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은 남녀 간의 관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05/ 참행복으로 초대받은 인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참행복은 지상의 기쁨에 그치지 않고, 하늘나라를 차지함으로써 완성된다.
- ②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때 참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 ③ 공동선의 바탕이 되는 인간 존엄성은 오직 개인과 개인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사회 계약에서만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 ④ 참행복은 안락함이나 부와 권력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참행복을 실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 선택 앞에 서게 된다.



대림 제3주간

강생의 신비



복음 말씀 묵상 | 마태 11,2-11

그때에 2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4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5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6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7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9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10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말씀 나누기 ;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자 자선 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세례자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렇듯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필리 2,6-7).”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강생의 신비입니다.

어느덧 대림 제3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미사 전례 안에서 사제는 자색 제의 외에도 분홍색 제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림 시기 안에서 지금껏 절제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면, 오늘만큼은 머지않아 다가올 성탄을 떠올리며 조금이나마 기뻐하라는 뜻이겠지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구해주셨듯이, 우리 자신

도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강생의 신비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보도록 합니다.

신앙 배움터 ;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서 시작이 없이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이미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통하여 자신을 은밀히 드러내셨고, 때가 차자 사람이 되시어 직접 인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만으로도,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게 아버지를 알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은총과 진리를 가져 오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죄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



나 완고한 인간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살리시는데, 사람들은 욕심으로 가득 차 생명을 파괴하고 평화를 깨뜨립니다. 점점 세상을 죽음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극한 ‘자기 비움(Kenosis)’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하느님을 배척한 아담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종의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분의 자기 비움 안에는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에페 4, 23-24)” 하는 길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필리 2, 3)” 섬김의 모습에서 출발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강생의 신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생명의 빛을 증언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일깨웁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마태 11,10)”**



대림 제3주간 강생의 신비

0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세례자 요한을 두고 아래의 구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여기서 세례자 요한을 지칭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마태 11,10).’

02/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세례자 요한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라도 그보다 더 크다(마태 11,11).”

03/ 하느님과 동등해지고 싶어서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는 달리,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04/ 성경에 드러나는 말씀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지 않은 분이시다.
- ② 말씀은 한 처음부터 하느님과 함께하는 참된 선재(先在)를 누리고 계셨다.
- ③ 말씀은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 ④ 말씀이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으로 드러난다.

05/ 필리피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기본 교리는 무엇입니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 ① 천주존재(天主存在)
- ② 상선벌악(賞善罰惡)
- ③ 삼위일체(三位一體)
- ④ 강생구속(降生救贖)



생명 윤리



복음 말씀 묵상 | 마태 1,18-24

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20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2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24 장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말씀 나누기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자신의 핏줄이 아닌 아이를 임신한 약혼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복음에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겪었을 갈등과 고뇌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마리아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녀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조용히 이 사건을 묻고 남몰래 파혼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요셉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리아와 그녀의 아이를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잔인한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핏줄이 아닌 아이를 키워야 했고,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로 대해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단순히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의무감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의무감 때문만이었다면 쉽게 지쳤을 것입니다. 평생 마리아와 예수님께 헌신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의무감을 뛰어넘는 사랑이 그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진정한 사랑은 타인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이제 곧 성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갈망조차 뒤로한 채 그 자체로 존엄한 한 생명을 받아들인 요셉 성인의 삶을 묵상해봅시다. 아울러 교회가 말하는 생명 윤리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신앙 배움터

인간은 생명의 유일한 목적이신 창조주와 특별한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는 생명의 성역으로서, 부부의 일치와 사랑으로 진정한 인간 공동체를 이루고 자녀를 낳

아 기쁩니다. 출산은 그 자체로 “하느님 모습을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달하는(『가정 공동체』 28항)” 복음 선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출산을 지향하는 성행위는 혼인한 부부가 육체를 통해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가장 완전한 표현입니다. 교회는 성행위가 혼인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부부 사랑의 표현과 자녀 출산의 목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성을 상품화하고, 성행위와 출산을 분리하여 성적 쾌락을 즐기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도구화하는 과학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1) 낙태

낙태는 인간의 생명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무고한 인격체를 죽이는 지극히 부도덕한 악행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까지 단기간에 경제 개발 효과를 얻고자 적극적인 산아 제한 정책을 실시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개방적인 성문화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이는 곧 낙태로 이어지는 경우를 때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태아들이 희생되었고, 많은 여성들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

었습니다. 또한 적잖은 산부인과 의사들도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 체외 수정

체외 수정은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여 시험관 안에서 수정시키고, 수정된 배아를 다시 자궁 안으로 이식하여 인공적으로 임신을 시도하는 시험관 아기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체외 수정을 반대합니다.

첫째, 체외 수정은 부부의 결합 행위와 출산 행위를 분리시킵니다. 물론 이에 따른 자녀는 존엄한 인격이지만, 부부의 온전하고 전적인 증여를 통한 인간 행위의 자연스러운 열매라기보다는 기술 행위의 산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생명은 존중받아 마땅한 하느님의 거룩한 선물이 아니라, 통제와 조작이 가능한 단순한 사물로 인식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맙니다.

둘째, 교회는 인간의 생명이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체외 수정은 여러 배아들을 만들어 내고, 그 가운데 일부만을 선택함으로써 나머지 배아들의 파괴와 낙태를 초래합니다. 이른바 잉여 배아들은 냉동 처리된 다음 파괴되거나 실험 재료로 사용됩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3) 안락사

안락사는 “죽음을 조절하여 정해진 시간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이며,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편안하게’ 끝맺게 하는 것(『생명의 복음』 64항)”입니다. 물론 환자가 극심한 고통 때문에 자연적인 죽음을 앞당기길 원한다면, 그가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게 언뜻 논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락사는 비인간적이고 잘못된 살해 행위이므로, 과도한 의학적 치료를 그만두는 것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죽음 또한 생명의 엄연한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의료 집착과 같은 무리한 방법으로 무의미하게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포기하는 행위, 곧 존엄한 죽음을 맞는 태도는 안락사와 확실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만 교회는 모든 뇌의 활동이 회복 불가능한 정지 상태, 곧 뇌사라고 판정되면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기증받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대림 제4주간 생명 윤리

01/ 오늘 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라고 하리라(마태 1,23).”

02/ 오늘 복음에서는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넣으십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마태 1,20-21).”

03/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는 생명의 성역인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가정의 기본 임무는 부부의 일치와 사랑으로 인간 공동체를 이루고, 생명에 봉사하는 것이다.

- ② 가정은 출산을 통해 하느님의 모습을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달한다.
- ③ 혼인한 부부가 육체를 통해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행위의 본질적 목적은 오로지 서로 간의 애정을 확인하는 데 있다.
- ④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과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04/ 교회가 체외 수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체외 수정은 부부의 결합 행위와 출산 행위를 분리시키고, 자연스러운 인간 행위가 아니라 기술 행위로 전락한다.
- ② 체외 수정은 인간의 생명을 통제와 조작이 가능한 단순한 사물로 전락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 ③ 체외 수정은 여러 배아들을 만들어 내고, 그 가운데 일부만을 선택함으로써 나머지 배아들의 파괴와 낙태를 초래한다.
- ④ 체외 수정에 따른 시험관 아기 기술은 출산을 지향하는 부부 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육체적이고 영적인 결합을 돕는다.

05/ 다음 중 교회가 가르치는 생명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 ① 안락사
- ② 장기기증
- ③ 혼전 성관계
- ④ 낙태



2022년 대림판공문제집

하느님의 모습으로(창세 1,27)

발행일 2022년 10월 20일
발행인 이용훈
편집인 이승환
발행처 수원교구 복음화국
주 소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정자동 578)
편 집 수원교구 사목연구소
전 화 031-458-4327
F A X 031-458-7224
E-mail pastor@casuwon.or.kr
디자인·인쇄 하상출판사
전 화 031-243-1880(대)

성명(세례명)

전화번호

본당

구역·반

※ 본 출판물에 대한 사항은 수원교구 복음화국으로 사전 문의 바람이며 모든 내용의 임의 변경 및 복제를 불허합니다.



이 책의 본문용지는 수원교구에서 진행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봉헌”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친환경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